

대명사 조응의 비통사적 해석에 대하여*

김 광 희(광양보건대)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4. 부재 선행사 |
| II. 대명사 조응의 해석과 문맥 편향성 | IV. 비통사적 조응의 문맥 표상과 해석 |
| III. 비통사적 대명사의 유형 분석 | 1. 준대와 격식의 인식 |
| 1. 총칭 명사의 반복과 특칭 명사의 대응 | 2. 표상과 실재의 괴리 |
| 2. 역행조응 | 3. 표현과 인식의 방향성 |
| 3. 선행사 - 대명사의 비긴밀성 | 4. 관찰과 진술의 시점 |
| | V. 맺음말 |

I. 머리말

대명사 조응현상에 대한 통사론적 관심과 설명은 철저하게 규칙 영역(rule domain)이라는 울타리 속에 제한되어 있다. Chomsky 문법에서 전개되어 온 대명사 연구는 대명사와 선행사의 결속 관계를 통사규칙과 LF해석규칙으로 설명하되, 이 규칙을 통사적 구조와 형상성의 바탕 위에서 구상하였다.

그러나 국어생활이나 텍스트 속에서 발견되는 대명사를 관찰해보면 그 용법이나 해석이 문맥이나 상황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확인하게 된다. 문맥과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대명사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통사구조에 따라 조응성을 분석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통사규칙 너머의 더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볼 수 없을 수 없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41-A00255).

이 글에서는 국어생활에서 실제로 부딪히게 되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대명사를 통사적으로 해석되는 대명사('통사적 대명사'라 약칭하기로 한다.)와 비통사적으로 해석되는 대명사('비통사적 대명사'라 약칭하기로 한다.)로 나누고, 그동안 통사적 기법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던 대명사의 비통사적 조응에 관심을 두어 살피려 한다. 이 글에서는 대명사의 비통사적 해석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이 요인들, 특히 대명사 표현을 생산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관여하는 상황과 문맥 구성 요소들이 텍스트 수용자의 내면에 심적 표상을 형성함으로써 비통사적 조응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변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살피고자 한다.

이 글의 논의는 5장으로 구성하되, 2장에서는 대명사 조응의 통사론적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대명사의 해석이 문맥 편향성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비통사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대명사 구문의 형식과 성격을 명사 반복, 역행 조응, 선행사-대명사의 비긴밀성, 부제 선행사 등으로 나누어 예문과 함께 간추려 보게 될 것이다. 이를 정리하여 4장에서는 비통사적 조응 해석을 위한 문맥 표상과 이해의 책략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II. 대명사 조응의 해석과 문맥 편향성

담화나 텍스트의 이해 과정은 주어진 표현이나 텍스트를 근거로 청자나 독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 또는 이미 획득한 정보 등을 통해 새로 주어지는 텍스트에 대한 응집성 있는 심적 표상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정모(1989)에서는 이 심적 표상이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 이외에도 텍스트의 배경 맥락, 자극 상황 단서, 텍스트 수용자의 의도와 수용자가 추정한 필자의 의도, 그리고 지식 수준 등의 각종 정보와 지식이 동원되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말하나 텍스트를 통한 의사소통의 관계란 발화자나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에 맺어지는 양측의 상황 모델의 일치된 표상을 형성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상황, 맥락, 심적 표상 등의 심리학적 개념에 의존하는 것은 통사론 유일주의적 조응 해석의 틀에 대한 반동이자 비통사적 해석의 논의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Chomsky(1981, 1986)의 결속이론은 대명사 조응을 설명하는 이론의 전형처럼 여겨져 왔고, 근자의 최소주의 이론에서도 그 이론적 전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¹⁾ 그러나 국어의 담화나 텍스트 속에서 만나는 대명사의 표현 양태와 다양한

1) 최소주의 이론에서는 과거처럼 엄격하게 이론화하지는 않고 "결속성분은 적절한 선행사에 의

가능까지를 통사구조에 기반을 둔 결속이론 안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은 설명력의 한계만을 드러낼 뿐이었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에서 필자는 대명사의 출현과 그 해석에는 통사적 제약과 의미 화용론적 제약이 서로 관련을 맺어야 함을 전제로, Chomsky(1986)의 결속이론에 대하여 통사론적 연구가 결속이론의 정밀화에만 몰두하는 한 순환론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임홍빈(1988:2)의 견해²⁾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필자는 문제 제기의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본인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인용문 (1)과 같은 실제 문학 텍스트에서 대명사의 선행사를 찾아보도록 질의하여 화자가 대명사의 조응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알아보았다. 국어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1)과 (2)의 예를 통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명사의 조응 해석은 통사구조가 아닌 문맥이나 상황 속에 내재하는 여러 맥락 정보에 따라 좌우된다.

(1) “떡철이라는 놈 말이요, (가)그놈이 음흉하요.”

“내버려둬라. 동네 크네기 쳐다보도 못하냐?”

“못 올라갈 나무를 왜 쳐다보요? 지가 어디라고 언감생심!”

“(나)가 나이 서른다섯이다. 널모레 마흔이여”

(서정인, 2003, ‘쟁풍두’, 『창작과 비평』, 통권 120호, 창비사)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진 인용문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밑줄 친 대명사 ‘가’의 지시적 선행사를 찾을 것을 요구한 결과, 학생들은 거의 예외없이 명사 ‘떡철’을 선행사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응답자 모두는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을 “떡철이 나이가 서른다섯이고 널모레면 마흔인데, 그 나이에 동네 크네기를 쳐다보는 게 뭐 잘못이냐, 그게 어디 못 올라갈 나무를 보는 것이냐?”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이번에는 같은 학생들에게 인용문 (1)과 함께 아래의 인용문 (2)를 연이어 제시해 보았다.

해 성분통어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제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이론의 후퇴가 아니라 자질 제약에 바탕을 둔 구조적 제약으로 일반화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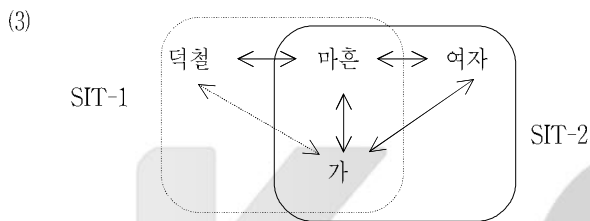
2) 임홍빈(1988:2)은 Chomsky(1986)의 결속이론은 Chomsky(1980, 1981, 1982)의 결속이론이 가지는 약점이나 결함을 보충하고 그 조건을 완비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래의 의도와 정반대로 전형적인 순환론의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명사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도입하지 않은 채 대명사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확립하려 하였기 때문에 순환론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하였다.

- (2) “여자 나이 마흔이면 잘생긴 년이나 못생긴 년이나 같고, 선이면 배운 년이나 못 배운 년이나 차이 없고, 예순이면 서방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마찬가지로, 일흔이면 자식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매일반이고, 여든이면 돈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매한가지고, 아흔이면 밥술 든 년이나 논 년이나 다를 것 없다. 근데 니가 왜 화를 내냐?”(서정인, 2003, ‘쟁몽두’, 「창작과 비평」, 통권120호, 창비사)

인용문 (2)를 제시한 후, 다시 인용문 (1)의 밑줄 친 대명사 ‘가’의 지시적 선행사는 무엇일 것인지를 묻은 결과, 이번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덕’(나이 40을 바라보는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을 선행사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영덕이 나이가 서른다섯이고 널모래면 마흔인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처자를 어디 함부로 쳐다보느냐?”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³⁾

인용된 예 (1)에서 (가)의 대명사 ‘그놈’의 지시적 선행사가 ‘덕철’에 대해서는 국어 화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통사적으로도 결속이론에 부합하므로 그 조응성을 설명할 수 있다. (나)의 대명사 ‘가’에 대해서도 국어 화자들은 ‘덕철’을 예외없이 선행사로 지칭한다. 그러나 (1)에 뒤이어 예문 (2)가 함께 주어지면 (1)의 대명사 ‘가’의 지시적 선행사로 ‘여자(영덕)’가 제시됨을 확인하였다.

(3)은 이 과정에 대한 두 가지 상황(SIT-1, SIT-2)의 도식이다.



(1)의 문맥 상황 SIT-1에서는 ‘덕철-가-마흔’ 등이 정보 연쇄를 구성하므로 ‘덕철-마흔’의 연계가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대명사 ‘가’의 선행사는 당연히 선행 문맥에서 찾게 되므로 ‘덕철’과 조응하게 된다. 그러나 후속되는 문맥 상황

3) 인용문 (1)만 제시되었을 때, 학생들은 대명사 ‘가’의 선행사를 그 앞 문맥에서 찾으려 하였고, 가장 가까이 나타나 있고, 화제의 대상인 ‘덕철’을 선행사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2)가 동시에 제시되었을 때에는 ‘여자 나이 마흔이면 ...’의 문장 속의 ‘마흔’과 대명사가 쓰인 문장의 ‘마흔’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정보라는 새로운 해석의 단서를 찾아 ‘가’가 ‘영덕’을 대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문법교육이나 문법론에서 말하는 선행사의 위치 수 격 성 등의 문법 정보 외에도 전후 문맥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정보들이 대명사 해석에 결정적인 요소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SIT-2를 통해 ‘마흔-여자의 관계가 더 명확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당초 텍스트 수용자가 형성한 문맥 상황 SIT-1에 의한 심적 표상은 곧 SIT-2에 의한 심적 표상으로 대체되고, 이 맥락 상황에서 ‘가’의 해석은 SIT-2에 편향된다. 대명사 ‘가’가 맥락 상황의 형성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SIT-1에서 SIT-2로 편향되는 결과를 통해서 대명사의 해석이 맥락 편향성(context declination)을 띤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대명사의 조응 해석은 문맥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문맥과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대명사의 선행사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통사구조에 따라 조응성을 분석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선행사와의 동지시 관계를 적절히 포착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결속이론에만 의존한다면 앞에 제시한 (1)과 (2)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대명사의 바른 해석은 기대하기 어렵다. (1)과 (2)를 통해 확인되는 바는 문맥이 만들어내는 상황에 따라 선행사가 결정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다.

- (4) 가. 자기_{4fj} 뒤를 이어서 사업을 맡아 달라고 김 사장에게 정 회장이 부탁했다.
- 나. 김 사장이 자기_{4fj} 뒤를 이어서 사업을 맡아 달라는 정 회장의 부탁을 거절했다.
- 다. 정 회장이 김 사장에게 자기_{4fj} 뒤를 이어서 사업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4다)에서 ‘자기’가 주격 명사구와 결속되는 것처럼 재귀사의 조응은 순행조응과 주어 지향성이 그 기본적인 속성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와 달리 (4가, 나)는 역행조응의 예인데, (4가) 역시 주어 지향성을 드러내는 반면 (4나)는 속격 명사구와 결속한다. (4나)의 조응성에 대해서 통사론자들은 재귀사와 선행사의 결속 영역을 내포문으로 한정하려 하거나 내포문에 공범주 주어를 설정하고 이를 매개로 조응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어 화자는 이 표현을 통사적 분석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구 ‘맡아 달라’가 형성하는 맥락 상황의 심적 표상에 의해 그 조응성을 이해하게 된다. 즉, ‘맡아 달라’는 행위자와 대상이 동일인물일 수 없다는 점과 행위의 방향이 ‘행위자 → 대상’으로의 일방향성을 갖는다는 점이 해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⁴⁾

4) 이와 달리 행위자와 대상의 일방향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라면
 (i) 철수는 자기_{4fj} 과거를 뉘우친다.
 (ii) 철수는 자기_{4fj} 실수를 영수에게 고백했다.
 예서와 같이 늘 주어 지향성 내지는 행위자 지향성의 해석만이 가능해진다. 이는 이 문장의 동사가 재귀성 동사로서 행위자와 대상의 동일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점에서 위 동사의 ‘달라’와는 어휘의 기본적인 속성상 그 방향성이 다른 구성을 하게 된다.

- (5) 가. 김 사장이 정 회장이 자기_i 뒤를 이어서 사업을 맡을 사람을 물색 중
임을 알고 있다.
나. 김 사장_i이 정 회장_j이 자기_i 뒤를 이어서 사업을 맡아 달라한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다. 정 회장이 김 사장_i이 자기_j 뒤를 이어서 사업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
다.
라. 정 회장이 김 사장_i이 자기_j 뒤를 이어서 사업을 맡을 사람이라고 소
개했다.

(5)의 예에서는 같은 격으로 실현되는 두 명사구가 존재할 경우, 이 둘은 잠재
적으로 대명사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 잠재적 선행사 (potential antecedent) 목록
중에서 특정 명사구를 실제 선행사로 선정하는 데에는 통사구조가 아닌 상황 요소
가 크게 작용한다. 같은 격의 명사구가 둘 이상 존재할 경우 대명사는 '근자일치
(近者一致)'의 경향성을 갖는다. (5가, 나)는 여기에 부합하는 예이다. 그렇지만 (5
가)는 원격의 명사와도 조응할 수 있고, (5다, 라)는 원격 명사만을 선행사로 택하
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수용자가 이 표현들을 통사적 실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
라 상황 도상성에 의한 심적 표상으로 인식하며, 또 이 표상 속에서, 동사들의 의
미 역할을 기준으로 조응성을 해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예들을 통하여
우리는 통사적 조응 해석의 한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비통사적 해석의 방법을 강구
할 필요를 갖게 된다.

소설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예도 통사론의 범주를 넘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 (6) 현관 바닥에 신발이 가득한 걸 보니 다들 온 모양이었다. 그 여자_i는 발끝으로
그것들을 양옆으로 밀면서 자기_i 신발을 가지런하게 벗어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동안 안에서 새어나오는 얘기를 엿듣고 말았다.(박완서, 2003, '마흔
아홉 살', 「창작과 비평」, 통권120호, 창비사)

(6)의 예는 소설 텍스트의 도입부인데 인물의 소개가 대명사 '그 여자'로 나타난
다. 이 텍스트 내에서 '그 여자'의 지시 대상이 누군인지 적절한 선행사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대명사가 지시적 내용을 갖지 못한 채 다른 제귀사 '자기'
의 선행사로 기능하고 있다. 오히려 텍스트 수용자는 '자기를 미확정의 대상 자체로
인식할 뿐이지, 이 대상의 지시성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도 화
자의 글 이해 방식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적 표상성에 의지한다는 점을 재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국어의 대명사의 조응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취해온 통사적 기반의 결속이론을 넘어 비통사적 요인을 고려하여 현상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형상성에 기초한 통사구조 중심의 결속이론만이 아닌 화맥과 담화 그리고 상맥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조응과 결속 원리까지를 포괄하여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⁵⁾

우리는 지금까지 대명사의 해석에 통사적 결속이론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많음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글들을 인용하여 비통사적 해석의 실증적 상황을 간추려 보았다. 한 문장 내에서 결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결속이론은 비교적 선명하게 대명사의 통사 속성과 의미 해석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국어 생활 속에서는 이러한 틀에 들어맞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편이어서 결속이론과 같은 통사적 규칙보다는 화자가 갖고 있는 국어에 대한 기본 지식 외에도 사회적, 문화적 지식 등까지를 동원한 총체적 언어 지식과 언어 능력에 의존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비통사적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여기 있다.

Ⅲ. 비통사적 대명사의 유형 분석

변형문법이 통사론에 의지한 문법이론이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문장 단위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상의 벽을 제거하고 의미론과 상황이론까지를 동원한다면 더 넓게 결속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일례로서 국어생활 속의 다양한 텍스트 자료를 대상으로 대명사 조응의 비통사적 용례와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5) 여기에서 우리는 임흥빈(1988:4)의 다음과 같은 비판적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결속이론에서 말하는바 대명사는 왜 그 지배범주 내에서 자유로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속이론이 이 물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을 때에만 이는 대명사 해석의 원리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결속이론은 언제까지나 약정의 성격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결속이론을 체계화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성분통어(c-command)의 개념이다. 대명사가 다른 지시표현과 동지시되고 또 그에 의하여 성분지휘를 받으면 그 대명사는 결속된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자유로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법에는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다. 대용사가 그 선행사에 의하여 성분통어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명백해져야 하고 마찬가지로 대명사는 왜 그러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백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결속이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얻을 수 없고 그것은 단지 공리적인 사실일 뿐이라는 것이고 이론적 추상화일 뿐이라는 것이다.

1. 총칭 명사의 반복과 특칭 명사의 대응

명사의 어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명사를 사용한다는 공지시대명사의 성격 규정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동일한 명사가 거듭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대명사의 사용이 기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7) 권력은 자연히 황제의 어머니와 외척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훗날 황제가 장성하여 다시 권력을 찾으려던 정변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었다. 이때 외척으로 둘러싸인 인의 장막에 가려진 황제가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궁중 사정에 가장 밝고 측근 중의 측근인 환관밖에 없었다. 측근이라고 했지만 환관과 황제의 관계는 실제로 부자간이나 모자간처럼 끈끈한 가족애로 맺어져 있었다. (양정일, 2004, 「장정일 삼국지 1」, 김영사)

(7)의 ‘황제, 환관’ 등의 명사는 총칭(generic reference) 문을 구성한다. 이 명사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인물이나 구체적인 사실(facts)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부류나 집합 — 특히 여기서는 신분·지위 — 에 대한 명칭일 뿐이다. 곧 개체성 내지 시·공의 객관적 실재성을 전제로 한 이름이나 구체적인 개체의 지칭어가 아니라는 말이다. ‘황제, 환관’은 외연적인 의미가 아닌 내포만을 갖고 문면에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고,⁶⁾ 이점이 외연적 대명사⁷⁾와 조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난 듯하다. 따라서 인용문 내에서 ‘황제, 환관’은 그 비실체성 내지 비개체성 때문에 대응되지 않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⁸⁾

(7)을 (8)의 경우와 대비해 보면 대명사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 (8) 그 무렵부터 당편의가 고향사람들의 주목에서 비껴나 앓게 된 것이 반드시 그녀가 안고 있던 모든 문계의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일견 그녀는 그 생애에서 드물게 평온하고 자적인 모습으로 그녀의 오십대 중반을 넘기고 있었

- 6) 익명의 심사자는 ‘황제’류가 어떤 문맥에서는 특정인에 대해 그의 일반적 속성을 객관화하기 위해 쓰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필자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철수는 아직도 밤의 황제로 군림한다.”는 표현이 그런 예가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 ‘황제’ 자체를 결국 대명사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 7) 대명사는 선행사로 지칭되는 상황 속의 구체적인 존재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외연적 속성을 갖고 있다(이전우·박순혁 1996:253). 대명사의 외연성은 외연적 의미를 갖춘 명사와 조응하거나 지칭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 8) 대명사 ‘이, 그, 저’와 지시어 ‘이, 그, 저’가 통용되는 것은 양자 모두 직시성(deixis)의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대명사의 직시성은 시·공간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실존을 가리키는 것인데, ‘황제, 환관’은 비직시적인 성격의 명칭이기 때문에 대명사와 존재 속성이 다르다. 그러므로 ‘황제, 환관’의 반복이 용납되는 것이다.

지만 그녀의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거의 없었다. (이문열, 2000, 「아가-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민음사)

‘당편이’는 화백에 의해 그 존재가 입증되는 실존 대상이다. 당편이는 이름으로서, 화자가 어떤 유일한 존재를 지칭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담화 지시물(discourse referent)⁹⁾이기에 외연적 존재이며, 외연적 의미를 필요로 하는 대명사의 지시적 선행사가 될 수 있다. (7)과 (8)의 대비를 통하여 대용의 대상은 특칭명사에 국한되며, 총칭명사의 경우에는 대용이 아닌 반복을 선호하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9)의 예를 더 검토해 보자

- (9) 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 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 자랑스런 용사들이여, 조국은 그대들을 기억할 것이다.
 다. 애들아, 아버지는 너희가 무척이나 자랑스럽구나.
 라. 우리 선배들은 후배들을 새로 맞아들이며, 너희를 환영한다.

(9)의 예에서 선행사 ‘국민, 용사, 애들, 후배들’은 모두가 총칭용법의 명사들이다. 그럼에도 대명사 조응관계를 이루며 문면에 나타나 있다. 특칭명사는 대명사에 의한 대용이 자연스럽지만 총칭명사는 대명사 대용이 자연스럽지 못하여 거듭 반복된다고 한 (7)과 (8)의 관찰과는 어긋나 보인다. 그러나 (9)의 예들이 총칭성을 띠는 하더라도 화자는 개체 하나하나의 존재를 전제하거나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집합성을 띠는 앞의 (7)과 다르다. (9)의 예들에 복수접미사가 실현될 수 있음도 그러한 속성의 반영으로 보인다.¹⁰⁾ 따라서 (9)의 총칭명사는 엄밀히 말하면 한정된 집합 내에서의 총칭성 혹은 복수성을 드러낸다. ‘황제’와 ‘환관’이 총칭성에 가깝다면 (9)의 명사들은 특칭성에 가깝다. 따라서 후자는 상대적으로 대명사 대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은 (8)과 같은 결속 대명사 외에 흔히 지시어라 칭하는 지시적 대명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절에서 논의하게 되는 바와 같이 지시대명사는 선행어와 공지시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다만 담화 내용이나 표현 자체를 유도하는 기능으로 쓰여 선행어와는 밀접하지 않다. 이 점에 있어 외연적 결속 대명사와는 구별된다.¹¹⁾

9) 담화 지시물은 세상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지시물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10) 같은 시각에서 ‘황제들, 환관들’의 복수형도 가능하나, 복수접미사가 결합되면 개체의 존재단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런 점에서 ‘황제’와 ‘황제들’, ‘환관’과 ‘환관들’은 질적으로 다른 층위의 의미를 갖는 어휘로 이해될 수 있다.

11) 익명의 심사자는 이 글에서 대용의 대상과 관련하여 총칭명사와 특칭명사를 배타적으로 설명

2. 역행조음

문을 구성하는 명사(구)가 선행 문맥으로부터 회복 가능하거나 예측 가능한 정보를 나타내는 경우, 이 구정보(舊情報)의 명사가 대명사로 대응되는 것을 순행 대명사화 혹은 순행조음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대명사가 지시 대상을 선행하여 나타나는 역방향의 대명사화를 역행 대명사화 혹은 역행조음이라 한다. 순행조음은 특별한 의미 화용론적 제약이 없는 반면 역행조음은 그 해석에 있어 제약이 있다.

(10) 가. 이 작품집에는 삶의 유기체성을 잃고 떠도는 도시인들의 군상이 그려져 있다. 덜덜거리며 안간힘을 쓰는 세탁기와 이야기를 하는 여자와 자기 삶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자동차 세일즈맨, 강간을 당하고 정신착란 상태에 있는 여자, 선로를 죽이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함께 야유회를 가는 상가회 사람들이 그들이다.

나. 고장나기 직전인 세탁기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힘을 내자꾸나, 영미야”라고 격려하는 <열집 여자>의 위태로운 상황처럼 일은 덜덜거리며 파국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이선옥, 2004, ‘일상의 권태에서 재난의 상상력으로’, 『장작과 비평』, 통권126호, 창비사)

(10)의 밑줄 친 예들은 대명사 ‘자기’ 혹은 ‘자신’의 지시적 선행사가 대명사에 후행하고 있으므로 역행조음에 해당한다. 명사 반복의 회피라는 대명사의 기능에서 본다면 비상한 용례라 할 수 있다. (10가)에서는 대명사가 관계문 구성에 나타난 경우로서, 결속이론에서는 ‘자기, 서로’ 등을 재귀사로 분류하고 결속 영역 내에서 반드시 결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결속 영역 설정이나 지배 혹은 성분통어의 개념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만한 예라 하겠다.¹²⁾ (10나)는

하는 것에 대하여 반증의 예를 제시하였다.

(i) 동물은 태어나면서 바로 걷기도 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인간보다 더 숙성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일까?

(ii) 영웅은 평범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는 항상 무엇인가를 찾아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i)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필자는 ‘동물’의 반복(“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숙성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일까?)이 대응보다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대응이 가능한 것은 동물’이 총칭명사이긴 하지만 그 개체성을 고려한 집합적 명사로 취급하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iii)의 ‘영웅’은 ‘황제’나 ‘환관’ 같은 류의 어휘로서, 특정 개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의 범주를 가리키므로 이 역시 반복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예에 쓰인 ‘그’는 특칭의 ‘영웅’에 대한 결속 대명사의 기능이 아닌 어휘 ‘영웅’에 대한 지시적 대명사의 기능으로 쓰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관점이 논쟁 가능한 의견 중 한 가지로 이해되기를 바란다

12)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란이 대명사의 선행사 결속 자체와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결속이

대명사 ‘자신’이 후행절 명사를 선행사로 하여 연결되는 문으로 이 역시 결속이론에 답을 수 없는 예이다. 그러나 ‘자신’의 선행사가 ‘영미’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문구조의 분석과는 별개이다. 국어 화자는 통사적인 분석에 의존하지 않고 문 맥락의 내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영미’의 연결을 추출한다.

역행조용은 기본적으로 비통사적이다.¹³⁾ 물론 통사론적으로 지배범주와 결속영역을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역행조용은 대명사화의 차원 이상의 ‘긴장성 유도’라는 화자의 의도를 담고 표현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역행대명사문에서 독자(청자)는 대명사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조건이 주어지기까지 그 명사를 변항으로 유보하여 두는 듯하다. 다시 말하면 지시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대명사는 변항으로 대기하는 기억상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때 (10가)의 경우처럼 그 지시대상이 곧 드러나면 그 긴장은 즉시 해소되겠지만, (10나)와 같이 대명사와 지시대상의 간극이 크거나 지시대상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자(독자)의 긴장은 훨씬 길어지고, 문 이해를 위해 오랫동안 집중하게 된다.

실제로 면담에 응한 사람들은 (10)의 ‘자신’을 변항으로 유지하는 긴장 상태를 문장의 끝까지 끌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 준 대학생들의 견해에 따르면,

- (11) 고장나기 직전인 세탁기에 자신₁의 이름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힘을 내자꾸나, 영미₂야”라고 격려하는 영희₃의 위태로운 상황처럼 일상은 덜덜거리며 파국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10나)가 (11)과 같다고 할 때, 대명사 ‘자신’의 지칭 대상은 ‘영미’이거나 다른 사람인 ‘영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자(독자)는 말하나 문의 선형

론을 세우기 위한 전체 요소로서의 성분통어나 지배 등 문법적 개념의 성립에 대한 논란이라는 점이다. 곧 이론 내적 구성을 위한 이론의 추상적 개념화의 문제라는 것이다. 대명사 조용의 본질에서는 비켜진 이런 문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그간의 연구 행태에 반성을 유도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 13)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역행대명사화 현상이 통사적 절차에 따른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통사론의 입장에서는 역행대명사화 역시 순행대명사문과 동질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곧 역행대명사화는 본래 어떤 유도과정을 거쳐 어떤 명사구가 그 앞에 있는 명사구에 의해 순행대명사화한 것이라 설명한다. Ross(1969:190)에도 이러한 설명이 발견된다. “Realizing that he_i was unpopular didn’t disturb Oscar_j,”는 “Oscar’s realizing he was unpopular didn’t disturb Oscar.”로부터 유도된 것이라 설명한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비통사적’이라 밝히는 것은 역행대명사의 용법상 순행대명사와 달리 화자의 적극적인 의도가 담기는 화용론적 이유 때문이다.

구조상 후행명사 ‘영미’가 일차적으로 ‘자기’의 지시적 선행사일 수 있지만 결속을 잠정 보류하고, 다른 잠재적 선행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러한 검색과정을 마친 후에야 최종적으로 지시적 선행사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시적 선행사인 ‘영미’가 동일 문장이 아닌 인용문 속에 등장함으로써 야기되는 모문과 내포문의 통사적 위상차가 해석되어야 하고, 의미론적으로 ‘영미’와 화자를 동일 인물로 해석해도 문맥의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는 인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것이 결속의 해석을 보류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리하여 선행사가 될 수 있는 잠재 명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 후에야 ‘자신’을 ‘영미’로 해석하게 된다. 이와 함께 (10)에서는 ‘영미 = 옆집 여자’의 해석도 추가로 얻게 되지만, (11)에서는 ‘자신=영미’와 ‘자신=영희’인 경우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중의적인 문장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판단 모두가 통사적 형상성이 아닌 문맥에 따른 다양한 의미 성분과 정보원에 의해 얻어진다.

해석상의 어려움과 문장 이해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행조응의 표현을 만드는 것은 노력 증대를 감수하고서라도 화자로서 얻고자하는 문체적 효과, 즉 긴장성 유도나 드러내기의 극적 효과, 청자나 독자의 집중 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 기법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독특한 목적을 지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3. 선행사-대명사의 비긴밀성

결속 혹은 조응으로 규정되는 대명사와 선행사의 관계는 통사적으로는 동일지표(co-index)의 관계로 표시된다.

- (12) 가. 철수는 자기를 미워한다.
나. 장발장은 자기의 죄를 뉘우쳤다.

(12)의 선행사 ‘철수’와 ‘장발장’ 그리고 대명사 ‘자기’는 분명 동일지시 관계에 있으며 동일지표로 이를 표시한다. 그러나 강범모(1988)이나 Reinhart(1983)에서는 동일지표와 동일지시가 별개의 개념으로 제시되었다.¹⁴⁾

14) 자세한 내용은 김광희(1997:80-81) 참조.

- (13) 영화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자막에는 ‘장자’의 한 구절이 나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견 분명히 사족이다. (강영숙, 2004, ‘평론, 실어증 환자들의 빈집 순례- 영화 <빈집>’, 『창작과 비평』, 통권 126호, 창비사)

학생들을 상대로 (13)의 두 대명사의 지시적 선행사를 찾아보도록 주문했다. 학생들은 대명사 ‘그것’의 선행사로 ‘구절’, ‘자막’, ‘장자의 한 구절’, ‘자막에 쓰인 말’, ‘자막에 쓰인 장자의 한 구절’ 등 여러 형태를 제시하였다.¹⁵⁾ (13)의 다른 대명사 ‘이견’의 경우는 그 선행사를 어휘나 구절로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의견이 분분했지만 학생들은 ‘영화가 끝나고 자막에 장자의 한 구절이 나오는 상황 혹은 편집 의도’ 자체를 그 지시 대상(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구체적인 개체를 지시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이나 개념 혹은 문맥을 대신하는 대명사의 지시적 선행사를 찾는 일이 청자의 이해와 인식의 방식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이유는 언중이 표현 그 자체가 아닌 표현이 그려내는 개념이나 상황의 도상성을 지시적 대명사의 내용으로서 공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 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용례가 쉽게 발견된다.

- (14) 이제는 부르는 쪽도 불리우는 쪽도 꺼려하는 환유(換喻)들이 있다. 앓은뱅이 ... 키다리같이 신체적인 흠결이나 질병의 후유증으로 그 사람 전체를 이르는 말들이 그러하고, 미치광이 ... 오입쟁이같이 정신적인 장애 혹은 불균형을 들이 비유의 대상을 갈음하는 말들이 그러하다. 예전에 그들은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와 함께 세상을 이루었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는 것은 그러한 갈음의 말뿐이었다. (이문열, 2000, 『아가-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민음사)

이 글의 대명사 ‘그들’은 바로 앞에 나온 ‘(환유의) 임자’에 결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명사의 해석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앓은뱅이, ...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들이라고 해야 정확해진다. 이와 같은 선행사와 대명사 사이에 지시적으로 긴밀하지 못한 연관성과 그러한 대명사의 용법 역시 통사론의 울타리 밖에 존재한다.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특정의 응답이 옳다거나 서로의 의견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의 차이를 학생들은 ‘감(感)’의 차이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국어학자가 대명사의 지칭 대상을 찾는 문제와 관련하여 엄격한 통사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이나 상황 등의 비통사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인식의 경향이 있음을 드러내는 바라 이해할 수 있겠다.

4. 부재선행사

선행사가 문맥에서 실현되지 않고 대명사만 단독으로 실현되는 예가 있다. 이를 부재 선행사라 이름하기로 한다. 선행사의 부재는 세 가지 양상으로 실현된다. 첫째, 문맥에는 선행사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화맥이나 상맥에서 선행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고, 둘째로는 문맥, 화맥, 상맥 중 그 어디에서도 선행사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셋째는 선행사가 실현되지 않을 뿐더러 선행사 자체가 필요없는 경우이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문두에 대명사가 실현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구체적인 문형이나 해석 과정에서는 서로 다르다.

- (15) 가.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나. 그대를 사랑하면 할수록 이렇게 외로워지는 건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나 깊은 까닭에.

(15)에서 보듯 조응관계는 문장 연속체나 발화 연속체가 독립적인 하나의 화행, 예컨대 회화나 이야기 등의 텍스트 내에서도 비언어적 화맥인 상념 속에서 유지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결속 영역을 문장의 범주를 벗어나 설정해야 하거나 아예 그 영역 자체가 무위(無爲)인 예도 있다. 이 모두는 통사론적 분석이 다루는 대명사의 조응과는 성격이 다르다.

- (16) 그는 환순간 눈을 번쩍 떴다. 강렬한 빛이 눈을 찔러 그는 겨우 뜬 눈을 다시 감았다. 자꾸만 눈을 찔러대는 것이 태양만이 아니라 얼굴을 덮고 있는 가시 돋친 풀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신경숙, 2004, '그가 지금 풀숲에서, 「창작과 비평」, 통권124호, 창비사)

(16)의 예는 소설의 도입부로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대명사가 문 도입부에서 주어로 사용된 점이고, 다른 하나는 소설의 종결부까지 '그'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정보를 대응하는 대명사가 신정보인 선행 명사의 존재를 전제로 도입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때, (16)과 같이 대명사가 주어로서 문을 도입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만 (16)의 예는 전혀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또 대명사가 문두에 쓰인 것만큼이나 과격적인 것은 소설 텍스트에서 선행사 없이 대명사만으로도 글의 진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16)은 의도적으로 대명사의 실체를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글쓴이는 익명성 혹은 의도적인 존재 감춤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덧붙여서 부재 선행사를 언급하면서 인칭대명사 '나, 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17) 가. 나는 이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꼭 놓였다.
 나. 너 자신을 알라.
 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2인칭 대명사는 직시적 성격의 대명사여서 담화에서든지 문맥에서든지 ‘화자나 청자 혹은 행위나 언술의 주체와 객체로 고정되기 때문에 1, 2인칭 대명사는 선행사와의 결속이 별 의미가 없다. 이러한 고정된 지시 관계의 정보는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모국어 화자의 인지체계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김광희(1992)에서는 인칭대명사 ‘나, 너’를 ‘내적 조응어’로 취급했다

이러한 예들은 모두 대명사의 용법이 통사 정보가 아닌 비통사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는 논리 아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IV. 비통사적 조응의 문맥 표상과 해석

대명사는 어떤 언어 형식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추상성을 띤다.¹⁶⁾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의사 전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간의 정보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화자와 청자는 같은 상황에 함께 있거나 화맥이나 상맥의 구체적 정보를 서로 알고 있어야 대명사를 사용한 대화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대명사는 다른 어휘와 달리 의미가 명료하지 못하다. 한정된 수효의 형태로 여러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추상성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대명사의 추상성과 불명료성 등의 속성은 그 이해 과정이 전적으로 화자와 청자의 상황 정보와 의도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대명사 해석에 대한 이해와 오해가 동시에 가능하다. 따라서 대명사의 비통사적 조응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규칙하고 자의적인 것처럼 보이는 비통사적 조응의 해석을 위한 문맥 표상의 몇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존재와 격식의 인식

국어의 특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대우 표현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다. 화자

16) 추상성에 의한 극단적인 용법이 정확한 단어를 떠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 저것, 그것’류의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는 말하나 글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존대 의식¹⁷⁾을 반영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대명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국어 화자는 어떤 대상을 대명사를 사용하여 지칭하는 것 자체를 [-존대] 혹은 [-비격식]의 표현이라고 인식함으로써 존대 의식을 투영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18)을 (19)와 비교하여 보자.

(18) 정 의원은 “현 정부는 복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장애인 불참 정부”라고 질책했다. 교육이나 편의시설 취업 생계대책 등에서 차별과 편견을 개선해 그들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장애인들의 비극적 죽음은 그의 호소를 뒷받침한다.(중앙일보 2005. 4. 15일자 사설)

(19)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의욕과 결의를 들었을 때 상당한 감명을 받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 정상회담의 말미에 고이즈미 총리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방일 초청을 했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조속히 방일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문 2002.2.25.)

문체론적으로 사설은 논설적 성격의 글이므로 존대 어법이 극히 절제되거나 존대에 대해 중립적이다. (18)의 글에서도 지칭 대상을 [-존대]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대명사 ‘그들’, ‘그’를 사용하여 대상을 지칭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을 다룬 (19)의 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휘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대명사 사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점이 대조적이다. 오히려 국어 화자들은 ‘대통령’을 호칭어는 물론 지칭어로 생각하는 의식까지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회계와 관련된 대명사 용법의 특징은 존대해야 할 대상에게 대명사를 쓰는 것보다 직함이나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어법상 선호된다는 점이다. 존대법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대명사의 기능을 하게 된 ‘선생님, 사모님’ 등의 명사를 의사대명사(pseudo-pronoun)라 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윤우열 1992 참조). 국어의 이러한 특징은 명사 표현과 대명사 표현의 차이가 통상적인 대용의 관계를 넘어 화용론상의 특질이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3인칭대명사 ‘당신’은 존칭 선행사를 요구하지만 화자와 존대 대상과의 친밀성이 두터워 상대적으로 덜 조심해도 무방한 경우나 화자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경우에 쓰인다. 그러므로 ‘당신’은 존칭성과 비격식(informal)의 상반된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대명사인 것이다.

17) 여기서 말하는 존대 의식이란 화자가 청자나 객체에 대하여 갖는 [+존대]의식 뿐만 아니라 [-존대]의식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존대어나 존대 표현 외에 평대나 하대, 겸양이나 공손 등 모든 존대 및 비존대와 관련된 화자의 의식이 이에 해당한다.

특정한 대상의 명칭(이름)을 지칭어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 명사를 대명사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하여 담화나 텍스트에서 3차 지칭의 대명사와 기능을 동일시하는 것이다.¹⁸⁾ 이러한 언어 관행은 대명사 사용을 [-존대]의 대상이나 상황으로 한정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2. 표상과 실재의 괴리

앞장(Ⅲ장 1절)에서 살핀 바를 토대로 우리는 선행사의 존재 위상에 대해 (20)과 같은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20) 조응대명사는 개체성·특정성의 선행사와 결속한다.

직시소(deixis) 혹은 지시어가 아닌 조응대명사의 선행사는 개체성·특정성의 대상으로 구현(해석)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떤 대상 예컨대 ‘황제’와 같은 총칭의 대상은 표상으로서 존재할 뿐이고 그 실재는 추상적인 집합이다. 대명사의 동일지시성이란 표상과의 관계가 아닌 실재와의 관계를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이다. ‘실재’의 조건이 충족될 때 대명사는 의미론적으로 결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21) 가. 임금_i은 임금_j다워야 하고 신하_i는 신하_j다워야 한다.

나. 임금_i은 ‘그_i(‘당신_i, ‘자기_i)다워야 하고, 신하_i는 다워야 한다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_i여, 당신_i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바라나이다.

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 땅의 아버지_i들, 그들_i에게 무한한 찬사를 보낸다.

(21가, 나)는 ‘임금, 신하, 아버, 자식’을 선행사로 한 대명사의 성립을 검토해 본 것으로 대명사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21다, 라)에는 ‘아버지[禰]’와 ‘아버지[父]들’이 선행사로 쓰였을 때는 대명사 대응이 가능하다. (21가)와 (21다, 라)의 차이는 선행 명사가 문맥상 표상으로 도입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대상의 개체성을

18) 이와 관련하여 텍스트 이론에서 Harweg(1968) 이래 동일성 대체의 개념이 공지시에 의한 재수용의 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른바 피대체어(여기서는 선행어)와 대체어(대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한 경우를 재수용이라 하는데 어휘 반복, 대용형 사용, 대체어의 생략 등이 주된 방법으로 사용된다. 명사 ‘대통령’과 같이 특정 명사구가 처음 도입된 이후에 그 명사가 반복되면서 재수용되는 것이 문장의 응집성을 유지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국어에서는 두 명사 사이에 수관형사와 지시관형사가 영어의 부정관사와 정관사처럼 피대체제와 대체제를 형태적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지시관형사 없이 명사만으로도 재수용의 관계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4:47).

전체로 도입된 것인지에 따라 구별된다.

직시어 혹은 지시어로 기능하는 대명사에 대해서도 개체성 내지 특칭성의 선행사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

- (22)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조가 활동하는 KT와 LG석유화학이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신노사문화대상을 받았다. 이는 노동계의 실용주의 확산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동아일보 2004. 12. 17일자 사설)

대명사 ‘이’는 선행하는 문맥의 사실을 지시하는 직시대명사이다. 이 대명사의 선행사를 개체성이나 특칭성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 그, 저’의 대명사가 개체로 실재라는 선행사와 결속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그 형태가 ‘이것, 그것, 저것’으로 바뀔으로써 대상 실재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 (23) <TAS2R28>은 여러 쓴 맛 가운데 한 타입만을 감지하는 수용체이므로 이것의 둔감해도 나머지 쓴맛 수용체가 민감하다면 별 문제가 없다. ‘단맛은 혀끝, 신맛은 혀양쪽, 쓴맛은 혀뒤, 짠맛은 혀 가장자리에서 느낀다’ 생물학 교과서에 나오는 맛에 대한 혀지도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특정한 맛을 느끼는 미각 세포가 혀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분포돼 있다는 것이다. (과학동아 2005. 4월호, 동아일보사)

이 예에서 ‘이’는 질문 자체에 대한 지시 기능을 갖지만 형태가 변화된 ‘이것’은 <TAS2R28>이라는 ‘수용체’의 실재와 조응한다. 이와 같이 표상과 그 실재에 따라 대명사의 형태나 해석이 달라진다.¹⁹⁾

19) 대명사의 표상과 실재에 따른 형태 분화를 현재로서는 이론이나 원리가 아닌 경향성의 이름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언어의 다른 현상과 마찬가지로 대명사 형태 변화와 해석의 상관성이 언제나 정합성을 띠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 예를 보자

(i)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공휴일은 토·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를 빼면 평균 10.3일이다. 이는 미국·영국·독일과 비슷하고, 프랑스(8.8일)나 경쟁국인 대만(7.8일)보다는 많다. (중앙일보 2005. 4. 11일자 사설)

(ii) 오늘날의 문화적 환경은 우리 자신의 삶과 정서를 분절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영복, 2004, 『뽕은 바람 속에서도 일어섭니다』, 『강의 나의 동양고전독법』, 돌베개)

(i)의 예에서 대명사 ‘이’의 형식은 그 선행어의 추상성에 연유한다. 그러나 같은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ii)의 글에서는 ‘이것’이 사용되었다. 대상 인식의 추상성과 구체성의 판단은 화자의 인식에 많이 의존하며 이에 대한 청자나 독자의 이해도 해석상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한 화자의 인식과 표현을 수용하는 것 같다. 이 글에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어떤 엄격한 규칙의 정합적 판단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이런 경향성이나 의식에 대한 가설과 추론을

3. 표현과 인식의 방향성

대명사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방향(direction)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행사와 대명사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대명사의 조응해석을 이해하는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대명사는 해석되는 범주라는 자명한 논리를 상기한다면, 해석의 대상과 조건이 이미 전제된 상태에서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순행대명사화)이 해석의 가능한 조건의 언급없이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역행대명사화)에 비해 자연스럽고, 인식의 구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명사는 정보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지(既知)요, 구정보에 해당한다. 만약 대명사가 문두에 등장하면 그 위치는 미지(未知)요, 신정보의 위치이므로 정당한 쓰임이 되지 못하고, 그 문장은 용인불가능한 문장이 된다. 그렇지만 어떤 대명사가 문두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인된다면, 위치상으로는 신정보일지라도 의미상으로는 상황이나 화맥에서 이미 제공된 구정보를 표현하는 것이어서 대명사 존재의 기준을 충족시킨다.²⁰⁾

(24) 자기의 욕망이 사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때, 그 본능적 충동은 억압되게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이다.(정대현 외, 2000, 『표현 인문학』, 생각의 나무)

(24)에서와 같이 문두의 위치는 신정보의 위치임에도 대명사 ‘자기’가 사용되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누구나 ‘자기’ 앞에 ‘인간’과 같은 명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선행사로서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음은 그 이전에 제시되었을 담화나 텍스트를 통해 형성된 담화 지시체(discourse referent)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언어 능력 혹은 언어 지식을 화자와 청자가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만을 본다면 역행대명사는 담화 지시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변형된 순행대명사화라 말할 수 있다.

역행 대명사화에 대하여 단순히 ‘대명사 - 선행사’ 혹은 ‘선행사 - 대명사 - 선행사’형의 통사구조를 갖는다고 보는 것과 조응의 방향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일면만을 보는 것이다. 마땅히 역행대명사를 구성하는 화자의 의식까지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Lost, Loveland and Komet(1980)에서는 3.5~7.5세의 어린이 82명을 상대로 대명사의 지칭 대상을 해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미약하나마 학적 담론을 확장시키는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본다.

20) 이러한 생각은 이미 Kuroda(1966)에서 선행사가 한정명사(definite noun)일 경우에만 역행대명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시된 이래 Ross(1967), Lakoff(1968), Culiover(1976), Boliyer(1978), Lasnik(1976) 등에서도 이 의견을 수용하였다.

석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순행대명사문과 역행대명사문을 각각 제시하여 응답하게 함으로써 오류와 정답수를 조사하여 대명사 이해에 미치는 방향성 효과(directional effect)를 분석하였다. 이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의 전 연령대에 걸쳐 선행 대명사가 사용된 문장을 역행대명사문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조응 관계를 훨씬 빨리 포착해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25) 가. 대명사 해석의 정답률

나. 동일지시어 추출



*Lust, B. k. Loveland, and R.komet(1980), 'the development of anaphora in first language : Syntactic and pragmatic constrains', Linguistic Analysis 6, 359-391

역행조응은 모국어 화자가 갖는 언어(국어) 이해 책략(language perception strategy)과 상당한 피리를 갖게 된다 이미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김영진·조명한(1981)에 의해서 실험으로 입증된 바 있다. 곧 국어는 표현과 이해의 양면이 좌 → 우의 방향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 방향성이 유지될수록, 그리고 관련을 맺고 있는 두 어휘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문장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행조응은 우 → 좌의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국어 문장에서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여기에서 우리가 갖는 의문은 이해와 소통상의 노력이 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어 화자들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역행대명사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발화나 텍스트에서 역행대명사가 사용되는 중요한 이유로는 화자나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효과를 노리고 역행조응의 표현을 구사하는 일이 있다. 말하자면 '베일 벗기기'의 효능을 의도하는 경우이다. 청자나 독자는 호기심을 갖고 대명사의 지시적 선행사가 드러나기까지 긴장하고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소설에서 특정 인물을 등장시키거나 부각시킬 경우 이러한 기법이 적절히 사용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화자나 글쓴이가 담화나 텍스트에서 굳이 대상을 밝히려 하지 않거나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화자의 의도가 상당 부분 개입되어 구성되는 것이 역행조응, 나아가 대명사가 사용된 문장 전반의 한 특징이다.

4. 관찰과 진술의 시점

대명사문의 생성과 이해의 과정에는 화자의 주관화와 객관화라는 인지와 의도와 시점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1, 2인칭대명사의 용법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진술된 문장의 인식 주체는 표면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상관없이 나로 표현된다. 이 인식 주체²¹⁾가 객관적 사실을 자신의 시점에서 주관적으로 기술하게 되면 인식 대상물은 ‘나, 너, 그, 그녀’ 등으로 지칭되지만, 관찰자로서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나’로 표시되거나 직함이나 이름의 명사 혹은 무형대명사(\emptyset -pronoun)가 더 잘 쓰인다. 이러한 구분은 전적으로 화자의 의도와 시점에 따른 표현의 결과이다.

- (26) 가 (영어 시간에) 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발음을 잘 듣고 따라 하세요.”라고 말했다.
 나. (영어 시간에) 나는 학생들에게 “ \emptyset 잘 듣고 따라 하세요.”라고 말했다.
 다. (영어 시간에) 그는 학생들에게 “잘 듣고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 하세요.”라고 말했다.

(26)의 예문과 같이 주체어로 제시된 대명사는 문장을 기술하는 인식자의 주관성에 의해 조정된 것이고, 진술문의 주어는 객관적 표현을 위한 대명사가 선택된다. 그런데 대명사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직함과 같은 명사 표현을 그대로 옮겨 쓰거나 아예 대명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 객관성의 표출이 훨씬 용이하다.

1인칭대명사 ‘나’는 문장 속에서 문법적 인칭의 기능을 하거나 논리적 인칭의 기능을 하는 두 가지 용법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26)의 예에서도 ‘나’를 ‘선생님’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문법적으로는 3인칭이지만 논리적으로는 1인칭인 것으로 차원을 달리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같은 예문의 ‘ \emptyset ’에 대해서도 ‘ \emptyset ’가 논리적 인칭으로는 1인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명사를 단순히 1인칭, 2인칭으로 구별하거나 화자와 청자로 구별하는 것은 국어 대명사 범주에 대한 설명적 충족성(explanatory adequacy)을 획득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여기서 인식과 시점의 주관성과 객관성의 구별이 부가되어야 더 풍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대명사는 화맥에서 관찰 능력을 가진 화자가 그 관찰 결과를 자기의 인식으로 가져와 재해석하는 표현이라고 그 의미 기능을 규정할 수 있다. 그 결과 3인칭의

21) 국어 문장에서 전체 문장을 이끌어가는 정보는 대체로 주체로 반영된다. 그러므로 진술된 문장 전체를 포괄하는 시점 표시자는 주체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경우에는 관찰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3인칭이 제3자라는 이유 때문에 화자의 의식을 통해 자유롭게 재해석할 수 있다.

(27) 이 연필깎이는 제 수명을 다했다.

비인간 대상물인 ‘연필깎이’가 ‘제 수명’이라는 재귀표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화자가 관찰한 객관적 사실인 ‘연필깎이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상태’를 인식하고, 이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나름대로 주관적 해석을 거친 표현을 쓴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1인칭과 2인칭의 경우 재귀화가 제약을 받는 것은 화자가 관찰한 사실에 대하여 주관적인 재해석의 과정에 대한 제약성 때문이다.

(28) 내가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줄 알니까?

이 예문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관찰자인 화자가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다. 1인칭의 표현은 3인칭과 다른 점이 있다

첫째, 1인칭 표현은 자신에 대한 관찰(통찰)이므로 3인칭 표현에 비해 상황에 대한 주관적 재해석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3인칭에서처럼 자신의 주관적 인식의 체계로 관찰 내용을 끌어들이 재해석을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1인칭에 대한 표현은 주관적 인식 작용이 배제된 지극히 객관적 관찰의 기록이다. 즉, 3인칭 재귀표현이 화자의 주관적 표현임에 비해 1인칭에 대한 재귀표현은 ‘자기 객관화 표현’의 성격이 강하다

둘째, 1인칭 재귀화가 자기 객관화 수법일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재귀 행동이나 속성을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이므로 현실과의 밀착성이 강하며, 대체로 객관적 검증이 3인칭의 경우보다 훨씬 쉽다. 객관적 검증이 쉽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의 진위 판별이 그만큼 쉽다는 것이다.

2인칭의 재귀화는 1인칭보다는 더 제약을 받는다 그것은 화자는 완전히 관찰자로서의 역할밖에 못한다. 내면의 세계에 대한 통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된다.

(29) 가. 너는 자기만 뽑내는 버릇이 있어.

나. 너는 너무 자기의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애.

다. ‘너는 내일 자기의 목숨을 끊을 작정이지?’

(29)에서 보듯 화자가 관찰하여 표현할 수 있는 (가 나)의 경우는 ‘자기를 사용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관찰이 불가능한 상대방의 계획(다)에 대해서는 화자가 의

식을 공유할 영역이 없으므로 재귀표현이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조응과 관련된 선행사의 인칭 문제, 인간성 조건의 문제, 인식과 시점의 문제가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그 본질은 동일한 현상이라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대명사 조응이 인칭에 따라 자연스럽게나 그렇지 못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화자의 의식이 작용하여 시점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유발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대명사의 바른 해석은 맥락과 상황의 조건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 글은 대명사의 비통사적 조응 해석의 필요성과 그 유형을 몇 가지 텍스트 용례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비통사적 조응 인지와 해석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기술되었다.

국어생활 속에서 우리는 대명사의 조응 해석이 문맥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문맥과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대명사의 선행사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통사구조에 따라 조응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통사적 용법의 대명사와 비통사적 용법의 대명사를 구분하는 것도 여기에 근거를 둔다.

실제로 국어생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명사 표현은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접근도 규칙이 아닌 원리 수준에서 이해의 책략을 고민해야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대명사의 비통사적 양상을 살피되 개체성을 속성으로 갖는 특칭명사가 조응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과 선행조응이 통사적인데 비하여 역행조응은 비통사적 조응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선행사와 대명사간의 지시적 관계가 긴밀하지도 명료하지도 않음에도 표현 구성과 이해에 무리가 없다는 점, 선행사의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조응의 구성과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비통사적 조응의 중요한 양상으로 제시하였다.

조응현상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명사의 해석이 통사구조 외에도 강력한 맥락 편향성을 띠며, 대명사의 조응 해석이 문맥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문맥과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대명사의 선행사 해석이 달라지며, 이는 통사구조에 따라 조응성을 분석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과이다.

대명사의 이해와 인식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은 화자의 언어 인식과 의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비통사적 조음 이해의 책략을 구상해 볼 수 있다.

- 가. 조음은 개체성, 특칭성을 갖는 대상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 나. 실제 대상뿐만 아니라 상황 도상성도 조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 조음의 구체적인 방식은 화자의 의도와 심리에 의해 결정된다.
- 라. 화자는 존재와 격식성의 인식, 표상과 실제성의 변별, 조음 방향성의 인지적 효과, 진술의 시점 등을 통해 문맥 표상을 구체적으로 형성한다.

이제 통사론적으로 형식화되고 기술된 대명사의 문제를 이러한 다양한 시각과 요인 분석을 반영하여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핵어문법과 같은 통합문법의 원리와 규칙은 이 방향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자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기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대명사, 조음, 결속, 선행사, 총칭 명사, 특칭 명사, 역행 조음, 부재 선행사, 문맥 편향성, 문맥 표상, 이해 책략, 비통사적 대명사, 비통사적 조음



< 참고 문헌 >

- 강범모(1988), *Functional Inheritance, Anaphora and Semantic Interpretation in A Generalized Categorical Grammar*, Ph. D. dissertation, Brown Univ.
- 공영일(1982), '대명사의 인지', 『언어연구』 3권, 경희대 언어연구소, pp.11-26.
- 김경학(1998), '결속현상의 기능적 화용적 설명', 『담화와 인지』 5권 1호, 담화와인지학회, pp.17-40.
- 김광희(1997), 『국어 변형범주 연구』, 한국문화사
- 김영희(1998), 『한국어 통사론을 위한 논의』, 한국문화사.
- 김영희(2003), '내포 접속문', 『한글』 261, 한글학회, pp.173-206.
- 양명희(1996), '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민행(1999), '담화상에 나타난 조응사의 선행사 탐색 -통제 정보포장이론의 틀 안에서', 『독일문학』 72권, 한국독어독문학회, pp.135-160.
- 이선우·박순혁(1996), 『의미영역』, 한신문화사.
- 이성범(1999), 『언어와 의미』, 태학사.
- 이익섭·채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정모(1989), '글 이해의 심리적 과정의 한 모델', 조명환 외 공저(1989), 『인지과학 : 마음, 언어, 계산, 믿음사』.
- 임홍빈(1987), 『국어 채키사 연구』, 신구문화사
- 임홍빈(1988), '구조적 평행성과 국어의 대명사', 『제5회 세계 한국학 국제 학술회의 논문집 : 한국학의 과제와 전망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pp.1-35.
-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 Holland.
- Chomsky, N.(1986a), *Knowledge of Language : Its Nature, Origin, and Use*, Praeger Publishers, New York.
- Chomsky, N.(1986b), *Barriers*, MIT Press.
- Pollard, C. and I. A.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SLI & Univ. of Chicago press.
- Reinhart, T.(1983), *Anaphora and Semantic Interpretation*, Chicago Univ. Press.

[Abstract]

The Analytic Approach to Interpretation of Contextual Pronoun

Kim Kwangh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und an analytic and positive basis of interpretation of Contextual Pronoun. The term 'Contextual Pronoun' can be defined as the pronoun which is interpreted by non-syntactical methods like as discourse situation, speaker's volition or intend, and shared conceptual information etc.

We see, hinted in everyday usage of the Korean language, interpretation of pronoun is closely connected with context. The referents of pronoun depend on what kind of situation is presented or how composited contextual indexes. This process is located beyond the syntactic approaches.

We argued in this paper, that the aspects of non-syntactic interpretation of pronoun are found conspicuously in the way of binding pronoun with its reference. The interpretation of anaphora is influenced by the specificity of antecedent noun, the direction of anaphora, the closeness between pronoun and its antecedent, and antecedent-absent compositions.

Arguing these issues, we proposed several strategic points for comprehension of anaphora.

key words : pronoun, antecedent, generic noun, specific noun, backward anaphora, absent antecedent, context declination, contextual representation, strategy of comprehension, contextual pronoun, discourse situation, conceptual information, non-syntactic interpretation of pronoun

김 광 회 광양보건대학 직업치료과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23-1 khkim@kwangyang.ac.kr
